

# 인천시 “균형발전 중심 조직개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초석 마련  
도시재생·일자리경제 등 부서 신설  
청년복지·고용 해결 조직 확대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민관 협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부서를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일자리창출, 남북교류 등 민선7기 공약사업 중심으로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천형 협치·혁신·소통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한다. 또한 시장 직속 기구로 협치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을 두고 민관협력, 혁신, 마을공동체, 소통 업무 전담 부서를 산하에 편제한다.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원도심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로 변경하고, 그 밑에 원도심재생조정관(전문임기제)을 채용해 도시재생국과 도

시균형계획국을 이끌어 나간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으로 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해 일자리경제본부로 신설하고, 산하에 3급 기획관을 두는 체제로 개편한다.

이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가장 의지를 보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알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위원회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경제본부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복지와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할 조직을 확대·개편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인천시장 공약 1호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위한 조직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가칭)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동해안 벨트가 선점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향후 서해평화청, 남북교류협력사업, 서해평화포럼 등 평화도시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총32명(전문임기제 제외)을 증원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안건 통과 후 2018년 10월 1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갈 첫 조직개편으로 민선7기 공약 사업을 추진할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시민을 위한 조직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w@metroseoul.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공사·출연기관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구감소 해결책은 기업유치·창업”

김영록 전남지사 인구문제 해결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서재필에서 열린 공사·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 인구문제는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출산율이 있어선 비교적 높은 편이다”며 “하지만, 인구유출이 많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일자리에 연계해서 중요한 문제로 보고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그런 성과를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직제표에서도 도지사 위에 200만 전남도민으로 해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도

민제일주의로 일하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며 “출연기관들도 일하는 면에서 본청과 차이가 없어 그런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일해 줄 것”을 덧붙였다.

그는 도정 슬로건과 관련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은 전남이 가진 여건이 생명의 땅이란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를 잘 활용해 우리도 당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항상 으뜸이란 목표의식을 갖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남도와 목포,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목포와 진도군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 수목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가 함께 열리는 기간이 같기 때문에 상생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 군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기지 수첩

김 남 중  
(지방자치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진도군의회가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4년 간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 했다.

앞서 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과 군의원 각각 1석씩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군수)과 의결 기관(군의회)을 압도적으로 장악 했다.

집권 여당에 의한 지방 권력 독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과 자치 분권이 탄력을 받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종속되고, 견제와 감시 보다는 거수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소수 야당과 무소속에 표를 던졌던 민의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야 하는 과제 안고 있다.

다행히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뤄 구성하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나 견제 세력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이제부터 군의회는 원(院) 내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민선 7기가 비리와 부패, 낭비와 비능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틀어쥐어야 한다.

현재 민선 7기 군정은 출범과 동시에 ‘이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이라는 틀에 갇혀 버린 상황이다.

이 군수의 3선 성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정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주의에 빠

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1년 뒤인 오는 2020년 5월 30일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간, 소속 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줄서기 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 7기 군정이 앞으로 4년 뒤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제8대 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회의 역할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감시와 강력한 견제 등 제8대 군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과거 제7대, 제6대 때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이 일해야만 한다.

군민들도 민선 7기 군정과 제8대 군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천시

## 시니어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베이비붐세대의 조기 은퇴자 등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인 40+ 시니어 창업스쿨 2기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40+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준비 없이 창업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시니어 대상 전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만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2년 이하)로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인천IT타워(남구 경인로 229) 6층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 광주 서구 청사 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포토존’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청사 민원실 내 신혼부부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추억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고 구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계획이다.

민원실내에 설치된 포토존은 신혼의 아름다움을 둘이 같이 시작해 나가는 의미로 행복한 집을 배경 이미지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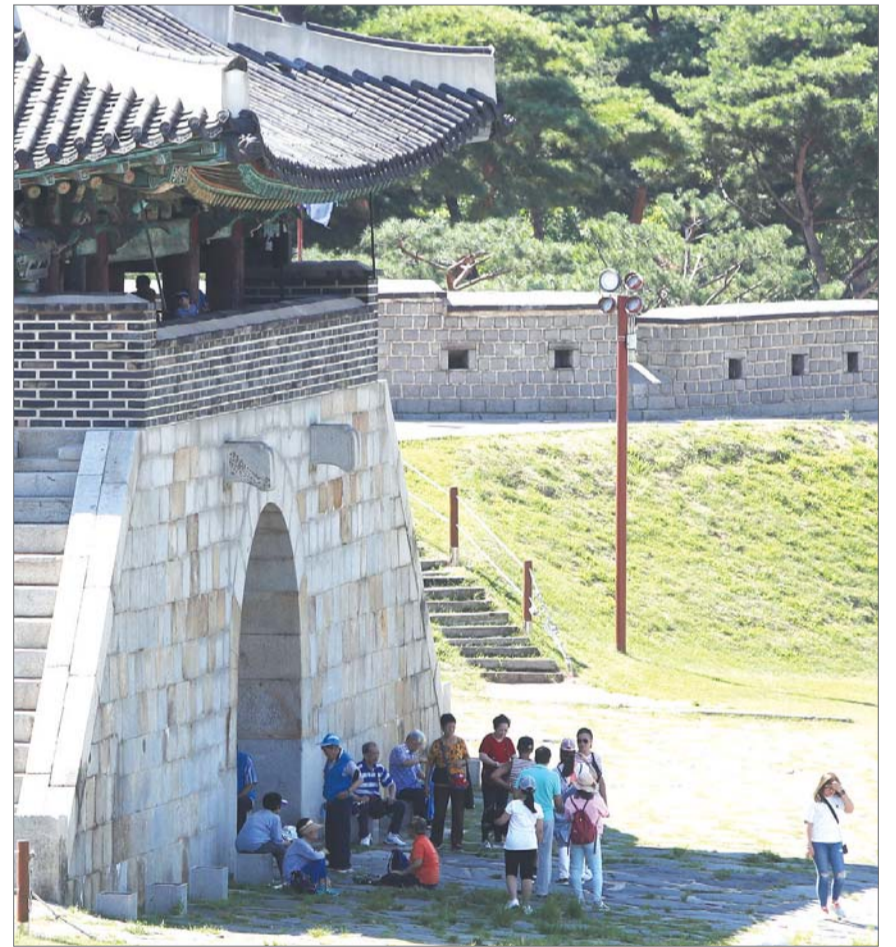
지붕에는 ‘우리 광주 서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요즘 젊은이의 트렌드로 여행지, 맛집, 기념일 등을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고 착안했다.”며, “포토존 설치로 기존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그늘 밖은 위험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창룡문을 찾은 관광객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에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 보리·밀 종자 54t 공급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산 정부보급종(보리·밀·호밀) 종자 54t을 확보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종자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대상 품종은 4개 품종이며, 품종별 수량은 흰찰쌀보리 26t, 새쌀보리 20

t, 금강밀 7t, 곡우호밀 1t이다. 가격은 20kg 한포에 쌀보리는 소독분 2만7800원, 미소독분 2만6400원이며, 금강밀은 소독분이 2만6600원이고, 곡우호밀 소독분은 3만6000원이다. 금강밀과 곡우호밀은 전량 소독분만 공급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중 호밀(곡우)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풀사료, 건조사료, 발효사료, 지력증진 등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호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